

넘어진일

학교에 갈려고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시간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데 배드민턴 채를 두고와서 다시올라갔다 채를 챙기고 다시 내려왔다.길을 걷던 도중 차가 오길레 피하고 한솔사우나 계단을 올라가다 발이 걸려 넘어졌다 다행히 다치진 않아서 다시 일어나 걸으면서 폰을 보면서 걷는데 뒤에서 이민준이 뛰어 왔다. 그래서 나도 뛰었는데 빠르게 줄서는 곳으로 도착했다 폰을 이어서 할려는데 바로 앞에 스쿨이 오고있어서 폰을 주머니에 넣고 기다렸다 버스 계단을 올라가서 진욱이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다보면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전 열체크 하고 손소독제를 하고 들어갔다 교실 안에서 아침밥을 풀고 장난치다가 1교시 쉬는시간에 물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다 또 넘어질뻔했다.